



굴, 레몬 껍질로 빨래걱정 끝!

www.tor.co.kr

검은색 옷 맥주로 행구면 색 되살아나

검은색 옷은 맥주로 행구자. 검은 옷은 잘 입으면 매우 세련된 느낌을 준다. 그런데 검은 옷의 단점은 여러 번 입으면 색이 바랜다는 것. 마음에 드는 옷인데 표면이 부영계 퇴색했다고 밀쳐들 필요는 없다. 마시다 남은 맥주를 행굼물에 넣어 한참동안 담갔다가 탈수해서 그늘에 말리면 처음 샀을 때와 같은 선명한 검은색이 되살아난다.

기저귀 행굼 때 마지막에 식초 넣어 세제성분 중화

갓난 아기의 기저귀를 세탁할 때 잘 행굼도 세제가루나 암모니아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저귀를 마지막으로 행구는 단계에 식초를 한 컵 넣으면, 세제나 암모니아 성분을 중화시켜 깨끗하게 된다. 또 기저귀가 희고 폭신폭실히 돼 아기 피부에도 좋다.

흰색 면양말 레몬껍질 넣고 삶으면 새하얗게

흰색 면양말은 좀 오래 신으면 아무리 삶아도 빨아도 본래의 색깔을 찾을 수 없다. 이럴때 레몬 껍질을 두어 조각 물에 넣고 삶으면 양말이 거짓말처럼 새하얗게 된다.

세탁할 옷 가루비누 칠해 봉지넣어 빨면 삶은 것 같이 돼

세탁할 옷에 가루비누를 칠해서 투명한 비닐 봉지에 넣어 햇빛에 20~30분 정도 놓아두었다가 빨면 삶은 것처럼 희고 깨끗해진다.

흰 속옷 빨 때 굴껍질 넣고 끓이면 하얗게 돼

팬티나 런닝셔츠 같은 흰 속옷을 빨 때 굴껍질을 이용하면 표백약품을 쓰지 않고도 집에서 깨끗하고 희게 빨수 있다. 우선 바삭말린 굴껍질을 물과 함께 끓인 다음, 그 속에 깨끗이 빨 속옷을 5분쯤 담갔다 꺼내서 깨끗한 물로 행구면 표백빨래한 것처럼 하얗게 된다.

스타킹 양손에 끼고 손씻듯 빨면 엉키지 않아

스타킹을 여러결레 모아서 빨다보면 서로 뒤엉켜서 빨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럴때는 스타킹을 장갑처럼 양손에 나눠 겹쳐 끼고 손을 씻듯이 빨면 한꺼번에 엉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손톱으로 인해 올이 나가는 일도 방지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말릴 때도 그대로 빼서 말리면 장소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좋다. PPPK